

연구논문

도시근교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김영희·한경혜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A Study on Marital Conflict of Wives in Rural Areas

Kim, Young-Hee·Han, Gyoung-Hae

Dept. of Home Management, Ansu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Agricultural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in marriage life, and to analyze their impacts on global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by wives in rural areas. The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151 rural wives.

The degrees of three types of conflicts were shown to be low, while in terms of the degree of seriousness, environmental,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are in descending order. Especially the degree of the environmental types of confli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conflict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type of conflic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satisfaction in the marriage life.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control variabl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husband's job, i. e., farm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t.

Key words : Rural wives, types of marital conflicts, marital satisfaction.

I.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해 전통적인 성격이 강하여 가족형태면에서는 직계가족을 많이 볼 수 있고, 가족역할의 측면에서는 가부장적 특성이 강하여 남성우위가 두드러지며 부부관계 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더욱 중시되어 왔다.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농촌가족의 특성도 점차 바뀌어 지고 있다. 가족크기의 감소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성원들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의사결정에서도 부인의 영향

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가족관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 대등한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김주숙, 1988; 변화순, 1993; 조옥라, 1990). 표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큰일에 농촌 주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좁기만 하며 아직 부부간의 갈등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농촌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부문제 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 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중류층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촌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촌부부 연구의 부족은 농촌가족의 특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부부의 관계만을 다룬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박영옥·한상순, 1987)나 의사소통 문제(김갑숙·최외선, 1992)로 느끼는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간의 관계적 측면이 행복한 결혼과 불행한 결혼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촌거주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 주변환경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에 관련된 측면 뿐아니라 주변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의 갈등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부들의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부부갈등을 결혼만족도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다루거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갑숙·최외선, 1992; 박영옥·한상순, 1987; 송말희, 1990). 단지 몇몇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바 있다(김재경 등, 1992; 정현숙, 1994). 따라서 도시부부들의 관계와 구별하여 농촌부부 관계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의도에서 농촌주부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갈등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갈등내용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의 여러 특징은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주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해진다. 많은 가족연구에서도 가족행동은 특히 가족생활주기와 사회경제적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현숙, 1994). 더우기 최근 들어 가족관계의 양상이 변화하는 농촌가족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에 대한 동태적 상황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따른 부부관계의 특성을 확

인해 밝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농촌주부들이 결혼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갈등내용을 분석하고, 가족생활주기,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농촌부부들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문제

1. 농촌가족의 갈등적 부부관계

오늘날 가족구성원이 현격히 줄어드는 가족 속에서 농촌 여성들은 육체적인 부담의 감소와 동시에 종래 여성을 규제하던 가족규범들이 약화된데서 유래하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조옥라(1990)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축을 이루고 있는 부자관계와 이와 연관된 고부관계의 위계적 요소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부장적 요소의 약화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가 이들의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다(김주숙, 1988; 조옥라, 1990). 말하자면, 부부관계의 내용상 부인의 독자적 역할 영역의 확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식료품, 옷 구입 등 큰 돈이 들지 않는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부인이지만, 비교적 목돈이 필요한 큰 살림 구입이나 주택 및 부엌 개량 등에는 남편이 더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의 학교 선택 및 배우자 선택을 하는데 주부가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는 보고는 이러한 부부관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조옥라, 1990에서 재인용).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부부간 권력 및 역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쉽고 이것이 부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가족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적 측면 뿐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주변환경에 기인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

히 농가부채 문제나 이촌향도의 문제 등(설동훈, 1993)이 심각한 농촌가족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농사를 짓고 있는 767명의 농촌가족에게 농사에 대한 만족여부를 물어본 변화순(1993)의 조사에 의하면 농사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전체의 26.3%, 농사가 그저 그렇거나 불만스럽다는 경우가 7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편보다는 부인들이 그리고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농촌주부를 원하지 않으며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도시에 진출시켜야 할 걱정 등 자녀교육 문제(김주숙, 1988)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 문제와 시가 문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혜인, 1987)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때 부부간의 관계적 측면만으로 제한하여 부부갈등 또는 결혼만족을 살피는 것은 농촌주부들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농촌주부들의 갈등의 내용을 부부간의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농촌거주 문제, 자녀 문제 등을 포함한 주변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부갈등의 내용

부부관계는 가족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부부는 환경과 경험이 서로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가정학에서 갈등연구는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전통사회의 가치규범에 어긋나며 따라서 가정내의 역할분담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연구에서 사용된 준거이론에는 암묵적으로 구조기능의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김양희, 1993),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은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갈등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갈등요인을 정확히 알아내기란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한 요인들은 학자에 따라 그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체계론적 관점에 의하면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의 특징(intrapersonal issues)과 부부간의 관계(interpersonal issues)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external issues)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현숙(1994)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영역으로는 성격, 습관, 건강, 종교적 지향성 등을 부부간의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성관계, 평등한 부부 성역할, 여가활동 등을 그리고 주변환경 영역에는 부모역할, 시가/처가관계, 재정관리 등을 열거하였다. 정현숙(1994)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주부들은 시가관계, 성생활, 재정관리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으며, 여가생활, 의사소통, 자녀양육에서는 상대적으로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갈등영역중 자녀양육, 재정관리, 성생활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은 부인에게 특히 중요한 영역으로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높은 갈등수준을 보고하였다.

김재경·문숙재(1992)도 부부갈등을 가족체계에 입각하여 심리사회적 관계 및 관리적 체계로 구분하고, 심리사회학적 하위체계는 부부관계와 인척관계의 영역으로 관리적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 재정문제, 가사노동분담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 주부들은 관리적인 체계 갈등정도가 심리사회학적 체계 갈등정도보다 높았으며, 결혼 만족도에도 역시 관리적 갈등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문제외 전화상담을 한 내담자들도 전반적으로 의도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성격 불일치, 의사소통 문제 순으로 많이 부부문제를 상담하였다(이미영·박혜인, 1995). 이처럼 도시부부들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의 정도는 부부간의 관계적인 특징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밝혀진 부부갈등의 내용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농촌가족 문제를 포함시켜 갈등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의 요인을 성격, 음주 및 술주정 등

의 개인적 영역, 의사소통, 여가활동 등의 부부간의 영역, 부모역할, 경제난, 시가문제, 농촌겨주문제 등의 주변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

가족연구에서 가족행동은 특히 가족생활주기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특징에서도 가족생활주기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통제하거나 고려한 연구의 설계가 필요하다(정현숙, 1994). 가족생활주기, 사회경제적 지위 등 배경변수들이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란 가족이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라 형성기→확대기→축소기→해체기로 이어지며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현 농촌가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원들이 늘기 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문제의 내용 또한 가구주의 연령별로 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주숙, 1988). 그러나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단지 김주숙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문제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질병의 문제와 노후의 걱정을 많이하여 심각한 부부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형성기에서 자녀교육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자녀성년기에 감소하고 다시 자녀결혼기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김재경, 1992; 박영옥·한상순, 1987).

정현숙(1994)에 의하면 부부갈등 영역 중 부부간 측면의 갈등정도는 가족생활주기 후반보다 전반에서 낮았으며, 주변환경 측면에서는 가족생활주기 후반부에서 더 갈등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숙(1994)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증가하고 주변 인척관계에서의 적응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자녀가 지금 어떤 발달단계에 처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결혼적응·자녀양육기, 학동기, 청소년기, 진수기, 중·노년기 가족으로 분류해 보았다.

2)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로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직업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낮아 부부간 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다(김갑숙 등, 1992; 김재경 등, 1992). 월 소득 자체는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회심리적 가족자원과 관계되어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한남제, 1987) 어느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결혼만족에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송말희(1990)의 연구에서는 수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김재경(1992), 김갑숙(1992), 정현숙(1994) 등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한 농촌현실에서는 부부문제를 설명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남편의 직업적 지위에 따라 부부갈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김재경 등 1992; 김갑숙 등, 1992)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부인의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갑숙 등(1992)의 연구에서도 사회승인도가 높은 계층에서 보다 도시근로자 계층에서 부부갈등이 많았으며, 남편의 직업에 불만족할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농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 농촌실정에 맞추어 농촌주부들의 남편의 직업인 농사에 대한 만족도를 부부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주부들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의 내용은 어떠한가? 특히, 부부갈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둘째, 농촌주부들의 결혼생활 만족에 있어 부부

갈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부부갈등, 가족생활주기,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과 연성동 내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시흥시는 도시 근교라는 지리적 인 근접성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신흥도시이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의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동사무소장, 사무소 직원, 영농 후계자들을 만나 농촌 가족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참조하였으며, 1994년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설문지 수정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같은 해 6월 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농촌지역이 매우 바쁜 6월 중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부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따라 목적적 편의표집을 하였다. 각 통의 부녀회장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부녀회장 댁 또는 마을공동회관에 모여있는 대상자들과 접촉하였다. 총 151명의 대상자와 약 30분 정도의 개별면접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2 종류의 설문지로, 농촌주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농촌주부의 부부관계의 내용에서 갈등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Olson 등(1982)의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를 정현숙(1994)이 번안, 수정한 척도와 김재경 등(1992)이 사용한 척도 중에서 안면타당도를 통해 15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김주숙(1988)의 농촌생활의 갈등에 관한 질문지 중 3문항을 선정하여 갈등내용을 총 18문항으로 만들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점수가 높은 것이다.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개인측면의 갈등, 부부간 측면의 갈등, 주변환경 측면의 갈등의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60$, $\alpha=.63$, $\alpha=.71$ 이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관한 주부가 인식하는 만족 정도로 부부갈등 내용과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로 질문한 도구는 '매우 불만'(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 농촌주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 표 1 >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39.9%)와 40대(22.9%)가 많았으며, 50대, 60대도 15%내외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농촌 고령화와 연결시켜볼 때 젊은 층이 많이 표집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고부가 동거할 경우에는 머느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약 98%가 중졸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유형은 부부가족과 핵가족이 59.0%, 확대가족이 40.9%로 도시가족에 비해 확대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자녀수는 2-3명이 70.0%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수는 2.4명(표준편차=1.26)이다. 또한 대상가족의 가족생활 주기는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1)*

변 수	내 용	빈도	백분율 (%)	변 수	내 용	빈도	백분율 (%)
연 령	20~29	8	5.4	자녀수 (명)	0~1	23	16.5
	30~39	59	39.9		2~3	98	70.0
	40~49	34	22.9		4이상	19	13.5
	50~59	26	17.6				
	60이상	21	14.2				
결 혼	10이하	39	27.9	가 족	부부+유아기	41	27.5
	11~20	43	30.7		학동기	29	19.5
지 속	21~30	30	21.4	생 활	청년기	20	13.4
	31~40	19	13.6		진수기	43	28.9
년 수	41이상	9	6.4	주 기	중·노년기	16	10.7
주부의 교 육 수 준	무학	51	36.4	연소득 (만원)	0~500	23	16.5
	국졸	35	25.0		501~1000	32	23.1
	중졸	51	36.4		1001~1500	38	27.3
	고졸	3	2.1		1501~2000	20	14.4
			2001~2500		9	6.5	
			2501 이상		17	2.2	
가 족	부부	16	10.7	농 업	농 가	118	81.4
	부부+미혼자녀	72	48.3		여 부	비농가	27
	부부+조부모+ 부부의 자녀	48	32.2				
유 형	부부+기혼자녀+ 손자녀	4	2.7				
	기타 확대가족	9	6.0				

*: 무응답에 따라 변수마다 사례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

직장인인 진수기 가족이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만의 가족 또는 유아기 가족이 27.5%, 학동기 가족이 19.5% 순이었다.

대상자 가구의 소득은 농사의 특성상 연소득으로 산출하였다. 연 1001-1500만원의 소득을 갖는 농가가 27.3%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이하가 약 40%의 비율로 나타나 농촌가계의 낮은 소득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대상가구를 농가와 비농가로 나누어 볼 때 조사대상 가구가 신흥도시와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비농가도 18.6%의 분포를 보이나 대부분(81.4%)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의 내용

농촌주부의 갈등적 부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을 제외하였다. SCREE 검사를 통해 요인의 수를 파악하였는데, 이론적으로 3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인영역(3문항), 부부간 영역(5문항), 주변환경 영역(6문항)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3요인은 전체의 57.8%의 변량을 설명한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갈등의 전반적인 경향은 〈 표 2 〉와 같다.

〈표 2〉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에 대한 일반적 경향

요 인	문 항	평 균 (1~5점)	표준 편차
개인영역	성격차이	1.47	0.87
	외 도	1.16	0.53
	음주·술주정	1.34	1.00
	전 체	1.32	0.78
부 부 간	영농문제의논	1.86	1.25
	가사문제의논	1.76	1.10
	가사노동분담	1.45	0.89
영 역	여가활동	1.75	1.14
	노후문제의논	1.35	0.79
	전 체	1.61	0.65
주변환경	시어머니갈등	1.64	1.04
	부모역할	1.90	1.07
	경제난	1.93	1.15
	시대경제적 요구	1.48	0.90
영 역	농촌거주문제	1.76	1.09
	농사일 과중	2.23	1.35
	전 체	1.78	0.69

농촌주부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은 평균 1.5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0.70, 범위=1-5). 갈등정도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변환경 영역의 갈등(M=1.78)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부간 영역(M=1.61), 개인영역(M=1.32)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개인영역의 평균을 살펴 보았을 때,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M=1.47)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외도에 관한 갈등점수가 매우 낮아 외도에 따른 갈등정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주부들의 부부문제 상담에서 남편의 외도에 관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는 이미영 등(1995)의 보고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부부간 영역에서는 영농문제 의논(M=1.86), 가사문제 의논(M=1.76) 등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환경 영역에서는 농사일 과중(M=2.23), 경제난(M=1.93), 부모역할(M=1.90) 순으로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게 나타난 이같은 사실은 금전문제보다는 성격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갑숙 등, 1992)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의 변량분석결과 : 평균과 표준편차

가족생활주기	부 부 갈 등		
	개인측면	부부관계 측면	주변환경 측면
부부+유아기	1.40 (0.56)	1.75 (0.67)	1.85 (0.50)
학동기	1.30 (0.52)	1.50 (0.58)	1.65 (0.32)
청소년기	1.24 (0.54)	1.81 (0.52)	2.06 (0.36)
진수기	1.29 (0.61)	1.45 (0.59)	1.65 (0.51)
중·노년기	1.37 (0.97)	1.63 (0.94)	1.37 (0.52)
F값	0.31	1.58	2.45*

()은 표준편차

*: p < 0.05

농촌부부갈등의 개인영역 및 부부간 영역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영역 및 부부간 영역의 갈등정도는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환경 영역은 부부 및 유아기에서 학동기로 가면서 감소하다가 청소년기까지 증가하고 그 후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F=2.45, p < 0.0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재경 등, 1992)에서는 확대기보다 형성기에서 부부갈등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농촌주부들은 결혼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도시주부들에 비해 주변환경에 기인한 갈등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노년기에서 갈등정도가 낮아지는 이같은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 (Anderson & Russell, 1983 ; Ward, 1993)를 비롯해, 가족생활 후반부에서 초반부보다 주변환경 갈등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정현숙(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3. 농촌주부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에 관한 농촌주부의 반응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또는 '불만족스럽다'가 16.2%, '그저 그렇다' 46.9%, '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만족스럽다'가 36.8%의 분포를 이룬다. 결혼만족도 분포가 편포되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의 문항을 통합하여 만족한다는 경우는 1로, 나머지 응답을 통합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로 간주한 후 0으로 이분화하였다. 종속변수가 이분화되어있는 경우, 오차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OLS 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어 유의성 검정이 타당치 못하게 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선정된 가족생활주기 및 갈등이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제하였는데, 사회계층 변수의 구성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은 주변환경 측면의 갈등영역 중 경제난의 항목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 ($r = -0.42, p < 0.01$),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생각하여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통제 변수로 교육수준과 남편의 직업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각 독립 변수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분석에 이용된 모형의 유의성 검정결과 $\chi^2 = 22.50$ ($df = 10, p < 0.01$)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분석모형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 예측력은 76.7%로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의 확률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변환경 영역 갈등 및 남편

<표 4> 농촌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51)

변 수	추정계수 (B)	표준오차 (SE)	t
갈 등			
개인적 영역	-0.45	0.67	0.45
부부간 영역	0.63	0.74	0.72
주변환경 영역	-1.33*	0.69	3.68
Controls			
가족생활주기			
유아기=1	1.19	1.34	0.79
학동기=1	0.37	1.23	0.09
청년기=1	0.06	1.24	0.00
진수기=1	-0.06	0.99	0.01
교육수준	-0.08	0.46	0.03
직업만족도	0.12**	0.36	9.85
상 수	-2.95	2.13	1.91
Model χ^2	22.50**		
df	10		
예측력	76.7%		

* : $p < 0.05$

** : $p < 0.01$

직업인 농사일 만족도 2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갈등영역 중 주변환경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생활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개인, 또는 부부간 영역의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로 농사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생활주기 또는 교육수준은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주부들의 결혼 만족의 확률을 높이는데 주변환경 영역의 갈등이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영역으로 소외되어 온 농촌지역의 부부문제를 고찰할 목적으로, 도시근

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시흥시의 목감동과 연성동내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농촌 주부 151명을 개별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볼때 주변환경 영역이 가장 높고, 부부간 영역, 그리고 개인영역 순이었다. 도시 부부의 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성격문제, 의사소통 문제 등을 심각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변환경 영역에 농촌 가족문제 항목을 첨가하여 주변환경 갈등을 측정된 결과 농촌주부들은 부부간 영역보다 주변환경 영역의 갈등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부부문제를 도시의 경우와 구별하여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대표성이 없는 탐색적인 시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집으로 도시와 농촌을 직접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주변환경 영역을 포함하여 농촌 부부의 갈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농촌주부가 지각한 갈등 중 주변환경 영역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부부기 및 유아기에서 학동기 까지 갈등수준이 감소하다가 청년기에서 다시 증가하여 절정을 이루고 중년기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도시부부에 관한 연구결과와 달리 부부기 및 유아기에서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주부가 결혼하여 신혼기에 있을때 농촌지역에 사는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에 따른 높은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결혼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초기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적 갈등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부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학업문제, 진학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육실정

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도시부부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촌에서 중·고교생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도시로 보내는 문제 등 심각한 자녀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본 실증자료에 의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할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촌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부부갈등 중 주변환경 영역과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주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농사일에 관한 과부담, 경제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농사일에 만족했을 때 주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자세 또한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점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여러의미에서 탐색적 성격을 지니며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부부관계의 일면으로 갈등을 살펴보는 연구인데도 부부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남편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부의 갈등적 관계를 측정하면서 주부들과 레포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적 질문지에 의한 응답시 솔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상향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추후 심층적 면접에 의한 정교한 측정이 요구된다. 표본의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농촌부부관계의 특성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133-144.
- 김양희(1998). 한국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출판부.
-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

- 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권 1호, 53-74.
- 김정옥(1993). 가족폭력 관련변인과 결혼불안정 성과의 관계분석, 가족학 논집, 제5집, 61-85.
- 김주숙(1988). 농업생산양태와 농촌가족문제, 한신논문집 제4집, 485-527.
- 박영옥·한상순(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제 1호, 33-49.
- 박혜인(1994).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실태파악 및 가족복지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2호, 179-191.
- 변화순(1992).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사회사 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 연구소.
- 변화순(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11-154.
- 서광희·조병은(1989).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 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1호, 97-120.
- 설동훈(1993). 한국농촌의 가족구성과 생활실태,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지, 157-184.
-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8권 2호, 31-48.
- 유은희(1994).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이미영·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1호, 141-154.
- 정현숙(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세미나 발표 자료.
- 조옥라(1990). 농촌여성의 가족관계, 한국여성개발원.
-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남제(1987). 도시부부의 갈등에 관한일 연구,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여성문제 연구, 제15권, 165-180.
- Anderson, S. A. & Russell, C. S.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27-137.
- Broman, C. L. (1993). Race differences in marit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724-732.
- Gelles, R. J. (1990).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67-472.
- Rogers, S. J. (1996). Mothers' work hours, and marital quality: Variation by family structure and family siz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06-617.
- Stets, J. E. (1990). Cohabiting and marital aggression: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69-680.
- Ward, R. A. (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27-438.